현대소설연구 (제7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18.12.72.5

황순원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공간연구

김 경 훈*

요 약

본 연구는 황순원의 장편소설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공간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작가의 현실 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본다. 기존 『움직이는 성』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갈등,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의 비극적 사랑과 구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로 인해 『움직이는 성』이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과 이와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의 구체적인 공간들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져 왔다.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공간의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추상공간의 재현과 이를 통한 현실인식의 발현이다. 1960년대 후반에 집필된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바로 도시공간이다. 치밀하게 움직이는 비가시적인 권력구조는 도시라는 공간을 생산해 내고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통해 주체의 실존적 지위를 위협하는 추상공간으로 작용한다.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도시공간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작중 세속화된 인물들과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이를 재현해 낸다.

둘째, 배제된 공간이 가지는 '휴머니티'에 대한 기대이다. 변경, 혹은 접경이라고 할 수 있는 빈민촌에 대한 작가의 사유는 성호라는 인물을 통해 전달된다. 작중 빈민촌에 대한 성호의 태도는 종교와 인간에 대한 고민이 차이가 무화된 추상공간이 아닌, 생명력을 가진 인간들의 목소리가 존재하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는 공간에서라야 가능함을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근원공간에 대한 추구이다. 이러한 근원공간에 대한 추구는 황순원이 가지고 있는 작품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작중 인물인 준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근원공간에 대한 추구는 움직이는 성에서 나타나는 공간의식이 단순히 시대를 재현하는 방식에서 그치지 않고 황순원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앞선 공간들이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작가가 추구하는 주제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에서 『움직이는 성』은 황순원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 인식이 공간을 통해 보여주며, 동시에 작가의 오랜 주제의식 역시 '서정성'을 넘어 시대와 함께 변화해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황순원, 움직이는 성, 현실인식, 공간연구, 추상공간

목차

1. 들어가며
2. 추상공간의 재현을 통한 현실인식
3. 배제된 공간의 역설과 휴머니티
4. 근원적 공간에 대한 추구
5. 결론

1. 들어가며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은 장편소설을 쓰면서 시작된 기독교적 세계관에 관한 작가 본인의 추구[1]와 "실존적 삶의 고통과 존재론적

1) 황순원의 작품에서 기독교적 주제의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두 번째 장

인식의 확장"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1968년 5월부터 『현대문학』지에 연재되었던 『움직이는 성』은 그해 10월까지 6회 연재되었고 이듬해인 1969년부터 1972년까지 5년간 5번에 걸쳐 분재[2],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전까지 황순원의 소설이 '순수'와 '절제'를 바탕으로 한 소설 미학을 추구하였다면 『일월』을 기점으로 황순원의 소설은 이전과 다른 현실 반영적 양상을 드러낸다. 그리고 작가의 이러한 변화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움직이는 성』이다.

『움직이는 성』에서는 기존 작가의 작품들에서 나타났던 선형적인 서사구조에서 벗어나 인물의 양상과 사건의 복잡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작품의 중심과 주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투사하려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대상 역시 기존에 천착했던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3]되는 과정[4]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움직이는 성』은 당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이면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갈등,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간들의 비극적 사랑 및 구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한 작품으로 평가 받아 왔다.[5]

편소설인 카인의 후예를 기점으로 한다. 이 작품 이후 『인간접목』(1957),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에서도 인간 구원의 문제에 다루기 시작 하였고 『일월』(1964), 『움직이는 성』(1973)에 이르러서는 그 색채가 더욱 뚜렸해 졌다.(송태현, 「두 문화의 만남: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 』을 통해 본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충돌」, 『신앙과 학문』 13권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8, 168-169면.)

2) 강진호, 「작가의 정체성과 개작, 그리고 평가-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의 개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9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33면.

3) 김종회, 『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168면.

4) 김종회는 황순원 작품 세계의 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기(1915-1936)는 단단한 시적 서정의 세계. 2기(1937-1949)는 단편작가로서 입신과 문학적 성숙을 예비한 초기 소설 세계. 3기(1950-1964)는 전란의 상흔과 모순에 맞선 인간애 및 인간중심주의로의 발전. 4기(1965-1976)는 실존적 삶의 고통과 존재론적 인식의 확장. 5단계(1977년 이후)는 내포적 자유에의 추구와 완결의 미학 추구이다.(김종회, 위의 책, 147-170면, 참조.)

『움직이는 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작품 전반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연구[6]이며, 둘째는 이를 제외한 기타 주제 연구들[7]이다. 『움직이는 성』에 대한 이 두 가지 연구 방향 중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의 연구 방법론이다. 이는 기존 작가에 대한 평가[8]와 더불

5) 장현숙, 『황순원 문학 연구』(개정판), 푸른사상, 2013, 355면.

6)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대결양상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들은 아래와 같다.
김병익, 『상황과 상상력』, 「한국현대소설과 한국기독교」, 문학과 지성사, 1973.
원형갑, 「기독교와 샤머니즘-'움직이는 성'의 주제-」, 『기독교 사상』 17권 4호, 대한기독교서회, 1974.
박남훈, 「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토착화 양상」, 『한국문학논총』 30권, 한국문학회, 2002.
김희보,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과 무속신앙」, 『기독교 사상』 23권 1호, 대한기독교서회, 1979.
김기석,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 『세계의 신학』 18권, 한국기독연구소, 1993.
노승욱, 「유랑성의 소설화와 경계의 수사학: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29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____,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통전적 구원사상, 『신앙과 학문』 16권 3호, 2011.
송태현, 「두 문화의 만남: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 』을 통해 본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충돌」, 『신앙과 학문』 13권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8.
정재림,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종교의 주체적 수용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43권, 한국문예비평학회, 2014.

7) 기독교적 의미 연구 외 주제의식과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고진하, 「유랑의식과 구원의 새 지평-황순원의 『움직이는 성』」, 『새가정』, 새가정사, 1986.
허명숙,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상징성」, 『현대소설연구』 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임영천, 「황순원 『움직이는 성』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8.
이은영, 「『움직이는 성』의 경계 넘나들기」, 『문학이론과 비평』 18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강진호, 「작가의 정체성과 개작, 그리고 평가-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의 개작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9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8) 황순원 문학에 기독교 사상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그의 장편소설은 기독교 정신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에 관

어 작품 전면에 명징하게 드러나는 기독교에 대한 작가의 사유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연구의 빈도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소략한데 그 이유는 이미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이 확고하게 규정되어 이후 연구의 가능성을 축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움직이는 성』의 경우 언급한 바와 작품 구조의 복잡성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작가의 초기작품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이고 다양한 장소들의 등장,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작가가 치밀하게 직조해낸 도시의 풍경과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인물들의 갈등은 작중 공간에 대한 작가의 이 같은 집중이 단순한 소설 배경이 아닌 작품의 주제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한 물음은 결국 선험적 구성틀에 대한 물음이다."라는 볼노(Otto Friedrich Bollnow)와 "공간은 시간과 다름없이 삶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민코브스키(Minkowski)의 말처럼 "삶은 근원적으로 인간과 공간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생각에서조차 공간과 떨어 질 수 없다."[9] 때문에 최근 이와 같은 사유를 바탕으로 소설에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주목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공간이 단순히 시간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닌 소설의 중심적 요소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움직이는 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작품 내부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유랑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적 측면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설을 둘러싼 공간에 대한 논의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점, 소설 내부에 존재하는

한 논의는 김병익, 한승옥, 정영훈 등의 연구에서 잘 드러난다. (정재림,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종교의 주체적 수용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43권 0호, 한국문예비평학회, 2014, 216면, 각주참조.)

9) Otto Friedrich Bollnow,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4, 23면.

공간은 인간 삶에 대한 재현이라는 소설적 추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간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소재적 분석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움직이는 성』의 경우 황순원의 소설 세계가 현실의 영역을 향해 팽창해가는 시작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접근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다양한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동 양상의 의미를 연구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품 내부의 공간들이 어떤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이 공간이 작중 인물들, 더 나아가 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추상공간의 재현을 통한 현실인식

르페브르에 따르면 도시는 추상화된 공간이다.[10] 이러한 추상공간은 자본권력을 통해 모든 차이를 무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의 무화는 자연스럽게 주체의 상실, 혹은 방황을 야기하게 된다. 『움직이는 성』을 통해 재현된 도시공간은 이러한 추상공간의 전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현의 과정에서 작가 황순원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1968-1972년까지 집필된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도시공간과 내부 인물들의 갈등 양상은 당대의 사회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제1차 5개년 경제

10) 앙리 르페브르에 따르면 추상 공간은 충만한 공간(자연과 역사 속에서 충만했던 공간)의 모방품이 다. 도시 경로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은 단절되고 이렇게 단절된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은 비본질적이다. 존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적인 활동, 만남, 전이의 흉내 내기 체험이며, 흉내 내기 몸짓(산책, 방랑)이 된다. (Henri Lefebvre,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452면, 참조.)

개발계획의 성과가 물질적으로 가시화되면서 경제적 풍요에 대한 기대감에서 시작된[11] 변화는 본격적으로 도시공간을 추상화된 공간으로 변모시킨다. "대망의 70년대"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이시기 경제적 측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매우 큰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중사회가 보편화 될수록 추상공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추상 공간은 중산층이 포진하여 자리를 잡아가는 중성적 공간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양 극단의 중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 공간은 이들의 발현이라기보다 오히려 대대적인 전략이 이들에게 지정한 공간이다. 이들 계급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 즉 자신들의 현실을 비추어주는 거울, 즉 안심시크는 재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이름 이 붙어 있는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세계의 이미지를 그 공간 안에서 찾는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불확실한 갈망과 너무도 확실한 필요로 말미암아 이 공간 안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12] 실제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경제 규모 속에서 대중이라는 그룹을 형성한 중산층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창애, 은희, 미스터 강 등 작중 세속화된 인물들은 도시라는 추상공간을 살아가는 중산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도시 공간을 살아가기 위해 주체가 가져야할 근본적인 고민을 포기한 인물들로 그려진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를 작가는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문제가 온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작품 내에는 굳이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배회하는 장면들에

11) 송은영,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권, 상허학회, 2011, 189면.

12) Henri Lefebvre, 양영란 옮김, 앞의 책, 466면.

집중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 인물들이 중요한 이유는 추상공간인 도시공간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자본주의적 세태 안에서의 도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주체를 상실하고 있는 당시 도시인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이들의 주체 상실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작가가 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야 말로 도시라는 추상공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13]임과 동시에 작가의 현실인식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추상공간과 관련하여 그 성격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 바로 창애이다. 창애는 작중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지는데 창애의 이러한 성격은 그녀가 머무는 공간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불륜남인 미스터 강과의 관계가 시작된 곳은 '가게'이며 중절수술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창애가 선택했던 곳도 '공원'이다. 미스터 강과의 갈등이 표면화 되었던 '홀' 역시 모두 도시 공간 내부에 존재하는 소비적 공간-여유공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창애라는 인물의 행동은 모두 도시공간-그중에서도 여유공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녀가 언제나 비본질적이고 비주체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 "①바바리코트에 양손을 찌른 한 여자가 한길을 가로질러 이쪽 인도로 건너오고 있었다. 몸시 뒤뚝거렸다. 달려오던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여자의 옆을 빠져 나갔다.

13) 추상공간은 정치적이며, 국가에 의해서 창설되었고, 따라서 제도적이다. 얼핏 보기에 추상 공간은 동질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실상 추상 공간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며 자신들을 위협하려는 모든 것, 요컨대 차이들을 싹 쓸어버리는 힘의 도구로 쓰인다.(위의 책, 415면.)

겨우 인도로 건너온 여자가 몇 발자국 옮겼는가 하자 크게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양손을 바바리코트에 찌른 채 버둥거렸다. ②지연이 달려가 여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술냄새가 확 끼얹혀졌다. 보니, 지연 자기 나이와 비슷한 여자의 창백한 얼굴엔 별 상처는 없고, 아랫입술에 피가 조금 배어있었다. 다행스러웠다. ……지연이 정류장에 이르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가 이번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길을 되건너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양팔을 허공에 허우적거리는 폼이 질주하는 차들에 주의라도 주는 듯했다. 여전히 비틀대는 위태로운 걸음이었으나 맞은편까지 무사히 건너갔다. ……③지연은 버스 타는 것도 잊고 여자가 뵈지 않게 될 때까지 그네의 걸음걸이를 지키면서, 옳지, 옳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다."[14]

위의 예문은 창애가 자신의 집 앞에서 지연과 스쳐가는 장면이다. 창애는(자신의 목적이 아니기에) 지연을 보지 못하지만 지연은 텅 빈 공간을 허우적대는 창애를 목격한다. ①에서 창애의 모습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 술에 취한 여인이 아니라 추상공간의 내부에서 허우적거리는 실존적 존재를 상징한다면 ②에서 지연이 창애를 돕고자 하지만 그런 도움을 거부하는 창애의 모습에서 두 인물간의 대립이 극명해진다. 그리고 ③을 통해 지연은 그런 창애를 응원하지만 창애는 여전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 공간 배회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15]

---

14) 황순원,『움직이는 성』, 문학과지성사, 1980, 185면.

15) 도로는 인간을 앞으로 내몬다. 도로에서는 단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만 존재한다.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로 가는 것이다. 도로에서 인간은 언제나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대비한다. 린쇼텐은 "도로의 현존재 안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다. 그는 공통된 움직임에 휩쓸리고, 언제나 도달 할 수 없는 목적지, 앞에 놓인 평행선의 교차점에 계속 끌린다."라고 주장했다.(Otto Friedrich Bollnow, 이기숙 옮김, 앞의 책, 136-137면.)

창애의 이러한 특성은 민구의 약혼자인 은희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민구의 약혼자인 은희는 창애와 짝패를 이루는 대표적인 세속주의자이다. 부유한 집안의 딸인 그녀는 전형적인 도시인이기도 하다. 그녀는 지나가는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렇기에 막연하게 준태와 창애 부부를 동경했으며, 또 같은 이유로 준태와 지연의 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창경궁 앞에서 준태와 지연을 만난 뒤 민구에게 계속해서 "떳떳치 못한 표정"이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성향의 결과물들이다.

> "그 여자는 챙이 큰 등산모에, 진한 잿빛 스웨터, 그리고 양회색 슬랙스에 운동화를 신은 완전한 피크닉 차림을 하고 있었다. 태릉 앞 배밭에 간다기에 시내에서의 몸차림에 하이힐로 나섰던 은희 자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배밭은 태릉에서도 한참 걸어들어가며 비탈진 데를 몇 번 넘어야 했다."[16]

그리고 이들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지연이다. 작중 지연은 구원의 여인상[17]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위의 인용문은 주인공 일행이 태릉의 배 밭을 찾아가는 장면이다. 도시에서 지연을 만났을 때 은희의 불쾌감이 막연했다면 이 장면에서 은희가 지연에게 느끼는 불쾌감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다. 추상공간인 도시에서 벗어나 실제적 장소인 태릉의 배 밭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지연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삶에 대한 실존적 태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나운 개"를 다루는 지연을 보면서 더욱 짙어진다. 그녀는 지연에게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며 이것은 그녀가 끊임

16) 황순원, 앞의 책, 96면.

17) 준태와의 사랑을 결국 이루지 못하지만 작품의 결말부분에서 별나라촌 돌이와 영이를 돌봄으로써 진정한 인간 구원의 한 방법을 모색하는 인물로 은희, 창애와는 대척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없이 지연을 배척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작가는 추상공간에 대립되는 공간인 배 밭을 통해 해당 인물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추상공간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에 대한 열등감과 질투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처럼 작품 안에서 나타나는 공간들은 단순한 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도시공간 내부의 인물들이 주체를 상실하는 추상공간으로 재현된다.

3. 배제된 공간의 역설과 휴머니티

도시공간이 추상공간을 상징한다면 그에 대비되는 공간으로 성호가 정착하는 빈민촌 또한 작가의 현실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작중 성호가 정착하는 빈민촌이라는 공간은 도시공간의 기능[18]에서 벗어난 곳으로 배제된 공간이지만 그렇기에 추상공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내포하고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이 작품에서 성호가 머무는 장소에 대한 묘사들은 그 당시의 궁벽했던 서울 변두리의 생활은 반영한 것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더 깊게 살펴본다면 작가의 의도가 단순히 가난한 시대에 대한 단순한 재현을 위해 빈민촌에 집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작중 성호의 공간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빈민촌이라는 공간에 사유 변화는 추상

18)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가지는 것이며,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그리고 특정한 어딘가에 의미 있는 정신적이고 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이다. 즉 장소는 자체의 특성과 그것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 때문에 장소에 대한 진정한 책임과 존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언급한 추상공간과는 다른 장소의 특징이다.(Edward Relph,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95면.)

공간과 대비하여 '휴머니즘적' 힘을 가진 차이의 공간을 탐색했던 작가의 현실인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가치마저 자본권력과 추상공간에 매몰되어가던 현실을 생각한다면 작가의 이러한 탐색은 충분히 납득할 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중 성호란 인물은 매우 입체적인 인물로 홍여사와의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보수적인 기존 기독교 교단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고뇌와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물음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의 추구는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원에 대한 고민이 결코 도시공간에서 해결될 수 없음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속과 신이 완벽하게 이분법 된 공간 안에서는 그가 가지는 모든 문제의식은 이분법적으로 사유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작가는 빈민촌이라는 접경공간을 통해 성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공간을 통해 구체화 시킨다. 성호는 친구인 민구의 소개를 통해 한 장로를 만나게 되지만 그는 결국 한 장로의 호의를 거절하고 여전히 교외의 작은 교회에 남는다. 그리고 교외의 그 공간에서 교단에서 문제가 된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적 인물의 재현이 일상적이고 추상적인 공간 안에서 진행되었다면 인물이 보여주는 고뇌의 진폭은 결코 크지 못했을 것이며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속(俗)과 성(聖)이, 그리고 인간적 정념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인 빈민촌을 배경으로 했기에 성호의 이러한 태도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서울서 동북쪽으로 한 삽십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부근에 돌이 많다고 해서 돌마을이란 이름이 붙은 이 집단주택은 서울 한강변의 수재민과 무허가 건축의 철거민을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블록벽에 시멘트 일본기와를 이은, 한 채가 앞뒤로

다섯 칸씩으로 된 건물이었다. 이런 건물이 스무 채씩 일렬 횡대로 다섯 줄 늘어서있다.

처음에는 난민들이 들어와 살았으나 이내 변동이 생겼다. 대개 팔고 나가는 사람은 막벌이하러 문안으로 돌아갈 교통비마저 아쉬운 축이고, 사갖고 들어오는 층은 서울서 전세 얻을 돈으로 차라리 이런 곳이나마 제집이 낫다고 생각하는 하급월급쟁이들이었다. 한 칸 살림방에 시가로 7만원 했다.

좁고 지저분한 사잇길을 걸어들어가면 언덕에서 내려다 볼 때의 질서정연하고 깨긋해 보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19]

위의 인용문은 작중 성호가 처음 거주하고 있던 서울 변두리의 집단주택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 인용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① "서울서 동북쪽으로 한 삼십리 가량 떨어진" 빈민촌의 위치와 부근에 돌이 많다고 해서 "돌마을"이라고 불리는 빈민촌의 기원, ② "처음에는 난민들이 들어와 살았으나" 이내 막노동 계층의 "파는 사람"과 "사갖고 들어오는 층"인 하급월급 쟁이 등이 혼재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빈민촌 세대들의 구성, ③ 외부에서 보는 바와는 다르게 "질서정연"하지 않은 판자촌의 내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①의 경우 앞서 논의한 추상공간을 나누는 도시적 계획의 의미를 가지나 ②, ③에서의 묘사는 그러한 추상공간을 벗어나 공간을 이루려하는 집단주택의 모습을 말해준다. ②에서의 묘사를 통해 경우 다양한 계층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모든 차이를 자본과 권력으로 무마하는 추상공간과는 다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즉 완벽하게 구획되지 못하였기에 도시로 판단될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성호의 목회 활동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성호가 도시의 교회로 가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궁벽한 곳에 대한 동정심의 발로가 아니가. 성호는 홍여사와 자

19) 황순원, 앞의 책, 15면.

신 사이에 있었던 죄에 대한 벌로, 더불어 사람을 위한 구원을 추구했기에 계속해서 빈민촌에 남으려 했던 것이다. 빈민가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는 그것을 '문화'라고 지칭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지만 작가가 주목한 것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단면들이 역동성을 가진 휴머니즘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미 추상화 되어버린 도시공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인간성의 발견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③의 경우가 이를 증명한다.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집단주택단지는 추상공간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공간이며 '차이'가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가진 공간에 대한 추구야말로 작가가 가지고 있는 현실인식이 추상공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의 극복이라는 것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성호의 막막한 기분은 그날 밤 자리에 누웠을 때까지 끌었다. 명숙이 무당이 낸린다고 해서 달려갔던 날, 자기가 너무 급작스런 충격을 준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는 후회가 거듭거듭 밀려왔다.
>
> 애써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뒷집에서 술취한 남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좀전에 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집 여인이 남자를 붙들고 온 모양이었다. 서른이 훨씬 넘어 뵈는 여인이었다. 이마와 눈언저리에 잔주름살이 잡혀있었다.
>
> ……
>
> 뒷집의 대화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
> 성호는 안심하는 마음이 되었다. 인생에 있어 해결이란 없는 법이다. 그저 해결에의 고리를 하나씩 달아가는 길밖에, 지금 한 여인의 측은할 만큼 가식 없는 진정이 한 청년으로 하여금 조출한 고리 하나를 달아놓게 한 것이다. 성호 자신이 그 청년을 만났다면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다. 감은 성호의 눈안에 이어지지 않은 무수한 고리들이 제멋대로 떠돌아다닌다."[20]

20) 위의 책, 265면.

성호는 집단주택단지에서 판자촌으로 그리고 남한산성 근천의 땅으로 이동한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의 이름은 "별나라촌"이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가는 이야기들을 듣는 성호의 모습이다. 앞서 추상공간서 인간은 교차할 뿐 만나지 못하는 한계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성호의 경우 빈민촌이라는 배제된 공간 안에서 타인의 "측은할 정도로 가식 없는"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바라는 구원이 단순히 내보이는 형태의 구원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리를 하나씩 달아나가는 길"임을 인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은 순간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구원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고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빈민촌이지만 그 곳이 매우 본질적이며 인간적인 공간이었다는 점, 성과 속이 교차하는 경계의 지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의 발견이야 말로『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공간의식이 추상공간과 그에 대응하는 인간적 공간의 탐구라는 작가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4. 근원적 공간에 대한 추구

마지막으로『움직이는 성』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근원적 공간에 대한 추구이다. 차이공간이 추상공간에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면 근원공간은 방황하는 주체가 머물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원 공간에 대한 추구는 준태라는 인물을 통해 드러난다. 작중 준태가 추구하는 공간은 인간 삶의 실존적 부분과 연관한 부분이다. 작가는 준태라는 인물을 통해 근원적 공간에 대한 추구와 인간 삶에 필요한 개인적 공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

고 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작품의 주요한 모티프중 하나인 "유랑민 근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 "아주 이 집을 팔아가지구 청산하두룩 하지."
> "집을 팔면 어떡해요?"
> "집같은 게 대순가."
> 준태는 집을 팔아 그네의 빚을 청산한 후 진짜 하숙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 했다.[21]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작품 초반 준태는 집에 대한 애착이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하숙생활에서 편안함과 자유를 느낀다.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인간과 매우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공간이다.[22]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곳도 집이며, 인간이 안정을 느끼는 공간 역시 집인 것이다. 하지만 준태는 이러한 집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준태는 작품의 주요한 모티프중 하나인 유랑의식을 대표하는 인물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작품의 후반으로 갈수록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준태의 태도 이면에 근원적 공간에 대한 추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 "어디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던 것도 아니어서, 한 산모퉁이를 돈데서 그만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때 계곡물 저편 2백미처쯤 떨어진 산자락에 초막이 하나 엎드려있는 게 준태의 눈에 들어왔다. 이미 산그늘에 싸여 나무숲 속의 어스름보다 더 짙은 어스름이 초막 둘레에 깔려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초막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준태의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고

21) 위의 책, 134면.

22) 인간은 집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는 집과 하나로 녹아들어 있다. 인간은 집에서 살면서 그 안에 현존해 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마치 신체적으로 타격을 받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Otto Friedrich Bollnow, 이기숙 옮김, 앞의 책, 378면.)

통인지 희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설레임이었다. 뭘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인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그저 초막이 오래전부터 거기 지어져있지는 않았으리라는 것과 앞으로 오래 거기 정착해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상념이 이상하게 마음을 뒤흔들었다."[23]

준태가 초목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양가적이다. "고통인지 희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설레임"은 준태가 가지고 있는 유랑민적 심상과 더불어 소유한 공간을 살아있는 삶 속으로 흡수하는 자기화(Aneignung)의 욕망이 바로 그것이다. 준태는 자신이 태생적으로 유랑민적 감각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지만 인간 실존의 근원에는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추구가 자리잡고 있다. 어떤 곳에 정착하고 책임을 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은 준태의 어렸을 적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24] 그리고 지연이라는 사랑하는 존재와 그곳에서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품게 된다. 즉 준태의 입장에서 창애는 자신과 본질적 공간에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지연은 그것이 가능한 존재로 비춰진 것이다. 이는 각 인물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쟈코메티의『광장』에 대한 지연의 평가[25]에 대해 준태는 "꽤는 소녀같은 얘기군."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상 지연이 느끼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평가를 무의식

23) 황순원, 앞의 책, 244면.

24) 준태의 내면에 존재하는 유랑의식에 관해 장현숙은 어렸을 적 그리고 결혼이후에 경험했던 굴욕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논하였다.(장현숙, 앞의 책, 360면.)

25) "……광장의 인물들이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들어가구 있지만 서루가 한자리에 모이질 못하구 지나쳐버려 대화따윈 나눌 것 같지두 않아 보였어요." ……"그 고독에 짓눌린 작대기같은 사람들을 볼때마다 잿빛을 느끼군 했죠." 지연은 잠시 사이를 두고, "그게 얼마 전부터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광장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이루게 될 거라구요."(황순원, 앞의 책, 245면.)

중에 수긍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러 준태가 가지고 있는 "유랑민 근성"이 사실은 근원적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 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무수히 많은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하거나 위로하지 못할 바에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준태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연을 만나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유랑민 근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물론 준태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그는 결국 자신의 굴욕감, 혹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지방을 떠돌다 최후를 맞이한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그가 지연과 언젠가 함께 보았던 풍경을 의식하여 비슷한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즉, 그의 유랑이 삶을 피해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근원적 공간을 찾아 떠난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 "준태는 사면과 천장이 각각 넉 자쯤의 방에 갇혀있었다. 허리를 펴고 일어설 수도 다리를 뻗고 누울 수도 없었다. 창문 하나 나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희미한 빛은 어려있었다. 방 한 가운데에 준태 자신이 손톱으로 뚫은 구멍이었다. 쥐란 놈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달려오는 쥐소리가 들리고, 구멍으로 쥐 발이 올라왔다. 그 발을 어루만진다. 실은 쥐의 발이 아니라 준태 자신의 손이다. 두 손이 서로 외로움이라도 달래듯 오래오래 어루만지다가 급기야 마루 밑의 손이 거둬진다. 준태는 공허한 마룻구멍을 무연히 들여다보고 있다."[26]

결국 준태는 지연이 보는 앞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준태는 결국 자신의 근원적 공간을 내면에서 스스로 발견해 낸다. "손톱으로 뚫은 구멍"은 그동안 근원적

26) 위의 책, 346면.

공간을 찾아내기 위해 무수히 노력했던 준태의 노력을 상징하며 "쥐"는 준태 자신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사면과 천장이 각각 넉 자쯤"되는 방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쥐의 발이 아닌 자신의 손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그가 근원적 공간을 현실에서는 얻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내면에서는 그 공간의 자기화를 이루어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작품 내부에서 계속해서 환기되는 "유랑민 근성"이 결코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러 황순원의『움직이는 성』은 추상공간으로 대표되는 현실의 문제와 더불어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공간에 대한 추구를 단계별로 아우르기에 이른다.

5. 맺음말

소설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의미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이 더 이상 시간에 종속된 서사적 결과물에 그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간으로부터 소설 작품이 놓인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고 그 공간을 통해 표현되는 다양한 담론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작품에 구현된 공간이란 사회경험의 구조와 궤적을 함께하며 동시에 실존 사건과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가능할 때 비로소 소설 내부에 존재하는 공간이 시간과 구별되는 한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설의 또 다른 구성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게 된다.[27]그리고

27) 한원균,「고은 시의 공간 소재와 미의식 연구」,『공간·지리·소통』, 문예창작학회 26회 정기학술세미나, 2014, 41면. 참조.

이 같은 관점에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는 공간성과 장소성에 대한 분석은 황순원 작품을 독해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작품 내에 나타나고 있는 공간성과 장소성을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 작품을 분석하였다. 첫째, 추상공간과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주체성 상실. 둘째, 배제된 공간의 역설과 휴머니티. 셋째, 근원적 공간의 추구가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황순원의 작품은 역사와 현실이 결여되어 있는 순수문학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그의 작품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역사와 현실 넘어서 있는 어떤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영역으로 이해되어 왔다.[28] 하지만 『움직이는 성』에 나타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작가의 추구는 현실에 대한 의식과 당대를 바라보는 통시적 관점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때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간에 대한 작가의 자른 작품에서 공간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개별 작품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황순원 연구에 있어 본고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주장하는 공간성과 장소성에 대한 연구 방법이 의미 있는 것은 황순원의 작품을 두고 이루어져왔던 '서정성'에 집중된 기존 연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점일 것이다. 모쪼록 본고의 논의를 통해 황순원의 작품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함께 통섭하고 있으며, 현재성을 가진 문학으로 계속해서 읽혀질 수 있다는 점이 환기될 수 있기를 바란다.

28) 정영훈, 「황순원 장편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의 문제」, 『국제어문』 41호, 국제어문학회, 2007, 90면.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황순원,『움직이는 성』, 문학과지성사, 1980.

2. 단행본

김병익,『상황과 상상력』, 문학과 지성사, 1988.

김종회,『위기의 시대와 문학』, 세계사, 1996.

장현숙,『황순원 문학 연구』(개정판), 푸른사상, 2013.

3. 연구논문

강진호,「작가의 정체성과 개작, 그리고 평가-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의 개작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59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 29-61면.

고진하,「유랑의식과 구원의 새 지평-황순원의『움직이는 성』」,『새가정』355, 새가정사, 1986, 63-68면.

김기석,「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세계의 신학』 18권, 한국기독연구소, 1993, 27-44면.

김희보,「황순원의 움직이는 성과 무속신앙」,『기독교 사상』23권 1호, 대한기독교서회, 1979, 151-161면.

노승욱,「유랑성의 소설화와 경계의 수사학: 황순원의『움직이는 성』을 중심으로」,『민족문학사연구』29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139-167면.

_____,「황순원의『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통전적 구원사상,『신앙과 학문』16권 3호, 2011, .99-120면.

박남훈,「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토착화 양상」,『한국문학논총』30권, 한국문학회, 2002, 493-518면.

송은영,「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상허학보』32권, 상허학회, 2011, 187-226면.

송태현,「두 문화의 만남: 황순원의『움직이는 성 』을 통해 본 기독교와 샤머니즘의 충돌」,『신앙과 학문』 13권 3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8, .165-189면.

원형갑, 「기독교와 샤머니즘-'움직이는 성'의 주제-」, 『기독교 사상』 17권 4호, 대한기독교서회, 1974, 165-189면.

이은영, 「『움직이는 성』의 경계 넘나들기」, 『문학이론과 비평』 18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28-47면.

임영천, 「황순원 『움직이는 성』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1998. 167-198면.

정영훈, 「황순원 장편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해석의 문제」, 『국제어문』 41호, 국제어문학회, 2007, 89-114면.

정재림,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종교의 주체적 수용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 43권 0호, 한국문예비평학회, 2014, 227-251면.

한원균, 「고은 시의 공간 소재와 미의식 연구」, 『공간·지리·소통』, 문예창작학회 26회 정기학술세미나, 2014. 39-50면.

허명숙, 「황순원의 『움직이는 성』에 나타난 상징성」, 『현대소설연구』 4권, 한국현대소설학회, 1996, 91-114면.

4. 번역서

Edward Relph,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Henri Lefebvre,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Otto Friedrich Bollnow, 이기숙 옮김,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4.

<Abstract>

A Study on Space *The Moving Castle* by Hwang Soon-Won

Kim, Kyoung-Hun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meanings of space in *The Moving Castle*, a novel by Hwang Soon-won, in a multi-layered approach and examine how they were connected to the author's perceptions of reality. There are three major patterns of space in the novel: the first one is the reproduction of abstract space and the manifestation of reality perception based on it. In this novel written in the late 1960s, urban space makes an important appearance. The invisible power structure moving in elaborate ways produces space called city and works as abstract space to threaten the existential status of a subject through various spaces inside it. In the novel, urban space reveals the author's perceptions of reality clearly and reproduces them based on relations between secularized characters in the novel and space. The second one is an expectation for “humanity” in excluded space. The character named Sang-ho conveys the author's ideas about poor villages called frontiers or borders. The last one is pursuit for origin spac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motifs that are the base of his creative world.

From these perspectives, *The Moving Castle* shows Hwang's perceptions of reality through space and, at the same time, demonstrates

that his long thematic consciousness also changed along with the times beyond “lyricism.”

Key words: Hwang Soon-won, *The Moving Castle*, study on the Space, Space of Abstraction, recognition of reality

투 고 일 : 2018년 11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11월 20일–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8년 12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12월 26일